

# 담양군 '잘사는 부자 농촌 만들기' 박차

### 농업 예산 1074억원 22% 늘려 벼 대체 작물·친환경 쌀 증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도 속도

담양군이 '잘 사는 부자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서부권으로 확장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앞장선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 예산은 1074억원으로, 2년 전 예산(882억원)보다 21.8%(192억원) 증가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담양군은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부자 농촌' 실현에 힘써왔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대체 작물 재배단지는 2022년 60ha에서 올해 250ha로 4배 넘게 늘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면적은 같은 기간 917.6ha에서 1100ha로, 2년 새 19.9%(182ha) 증가했다.

담양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 105만포를 전량 지원하기도 했다. 가축분 퇴비 지원사업에는 29억원을 지원했다.

담양 동부권에서 운영해오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서부권으로 확장해 농업인의 편의를 꾀했다.

지난 4월 수북면 개동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 문을 열어 35종, 89대의 농기계를 농민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축산 부문에서도 담양군이 두각을 나타



이병노(오른쪽) 담양군수가 이달 초 고서면의 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낼 예정이다.

담양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담양군 용면 두장리 일원 5.5ha에 축사 8동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한우 1170마리를 사육한다. 스마트 단지에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18억원 등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관제센터를 건립한다.

축사 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등에는 97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스마트 축산단지가 들어서면 인근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담양군 측은 기대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 한우의 가치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끄는 혁신으로 군민과 약속한 '잘사는 부자 농촌'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함평군 해양레저 복합단지 등 역점 사업 속도

### 민선 8기 2년 차 성과 보고회

함평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해양레저 복합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역점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이상의 함평군수 주재로 열린 '민선 8기 2년 차 성과 보고회'에 담겼다.

각 실과소 부서장과 읍면장 등은 2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역점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함평군은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첨단산업도시 건설'과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함평읍 도시재생·중심지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치유 공간을 만들고, 임대형 스마트팜(첨단농장)을 건립해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를 꾸릴 계획을 세웠다. 또 대규모 도로망을 확충해 도시 공간을 개선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민선 8기 10대 주요성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 ▲함평 명소의 전국 대표 관광지 선정 ▲호남권 최초 독립적인 감염병관리센터 개소 ▲전국 최초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신광면 행정·복지 거점시설 확충 ▲대한민국 국향대전 최우수 축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함평군 농촌협약 체결 ▲전국 지자체 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등을 꼽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2년간 성과는 열정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의 2년도 창의·선제적 행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난달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잔디광장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성군, 고소득 슈퍼푸드 '호라산 밀' 첫 수확 성공

### 황룡농협과 협력 생산단지

### 11농가 참여 28ha 규모 재배

장성군이 고소득 작목으로 꼽은 '호라산 밀'을 처음 수확했다.

장성군은 황룡농협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호라산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첫 수확으로 이어졌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황룡면 신호리 호라산 밀 생산단지에서 첫 수확을 진행했다.

장성에서 호라산 밀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11가구이다. 이들은 28ha 규모 호라산 밀 생산단지를 꾸렸다.

장성군은 황룡농협과 손잡고 종자 공급, 밀 전용 비료 제공, 병충해 방제, 수확 대행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수확한 호라산 밀은 제주 함덕농협이 수매할 예정이다.

'슈퍼푸드'라 불리는 호라산 밀은 일반 밀보다 영양 밀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라산 밀을 재배하면 콩, 가루 쌀과 이모작을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황룡면 신호리 호라산 밀 생산단지를 찾아 수확 과정을 살피고 있다.

할 수 있고 재배 면적당 생산량과 수매 가격이 일반 밀보다 높은 편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 근심이 큰 가운데 호라산 밀 시범 생산에 성공하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작목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자원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군 30일 정남진 편백숲서 '문화배달' 행사

### 참가자 40팀 선착순 모집

장흥군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잔디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이 행사는 '숲속 공작소-숲안에 제페토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장흥군은 행사 당일까지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할 참가자를 선착순 40팀 모집한다.

행사에서는 동물 목각 인형, 나무 깎기, 야영 의자, 인디언 캠핑 선반, 받침대 만들기, 흔들개비 만들기 등 8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보드게임 등 놀이 공간과 초상화 그리기, 목수

대회 등도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어쿠스틱 밴드의 무대도 펼쳐진다.

우드랜드를 찾는 방문객들도 '숲속 점빵'에서 동물 모양 열쇠고리, 나무 연필, 메모장, 자동차 전화번호 안내판, 책가라지, 나무자석 만들기 등 상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행사에서는 나무 장난감 목공 체험과 거리 공연 등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 개미산 전망대 1년 공사 마치고 준공

화순 개미산 전망대가 1년간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한다.

화순군은 오는 28일 오후 7시에 개미산 정상에서 전망대 준공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민선 8기 2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개최된다.

전망대는 지난해 7월 착공한 이후 12개월간 전

망대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거쳤다.

준공식은 식전 공연과 기념식, 민선 8기 2주년 기념 영상 상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전망대 시설을 관람할 때 화순천 음악분수대 공연도 볼 수 있다.

전망대 3층에는 커피 전문점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